

日韓の文字

現在日本では、漢字・ひらがな・カタカナの3種類の文字が使われています。のうち漢字は中国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意味を表す表意文字、ひらがなとカタカナは日本語の音を表すために漢字をアレンジして作られた表音文字です。この3種類の文字にはそれぞれ使い方に複雑な決まりがあり、そのため日本語が難しいと感じている韓国人も多いです。韓国ではハングルという表音文字が使われています。この文字は15世紀に世宗(セジョン)という王様が、漢字が読めない民衆にも簡単に学べる文字を作るように命令してできたもので、韓国語の音を表すのに非常に科学的、効率的にできています。

현재 일본에서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3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자는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문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는 일본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변형시켜서 만든 표음문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자에는 각각 사용에 복잡한 규칙이 있어서, 그 복잡함 때문에 일본어를 어렵게 느끼는 한국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이라는 표음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15세기에 세종이라는 임금이 한자를 못 읽는 백성들에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씨를 만들도록 명령해서 생긴 것으로, 한국어 소리를 나타내는 데 매우 과학적,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